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워싱턴 D.C. 포커스

- (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년 주요국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 상향 조정 2
- '25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관세 인상 전 선제적 조달·첨단 기술 투자로 예상보다 탄력적인 성장세 기록했으나,
'26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경제통상 동향

- (관세) 美, 로봇·산업기계·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232조 국가안보 조사 착수 5
 - (규제) 미, 중국 선박 항만수수료 10월 시행…수출입업계 부담·공급망 영향 우려 6
 - (관세) 美, EU산 자동차 관세 15%로 소급 적용, 일부 품목 면제 조치 포함 7

의회법안 동향

- 의회 특이동향 없음 8

이시각 헤드라인

- | | |
|---------------|----|
|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9 |
|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10 |

 월상년 D.C. 주요일정

9.23(화)	• 9월 S&P 플래시 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S&P flash U.S. manufacturing PMI)
9.24(수)	• 8월 미 신규주택판매(New home sales)
9.25(목)	• 9월 3주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Initial jobless claims)
9.26(금)	• 8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Core PCE index)

⌚ 워싱턴 D.C. 포커스

(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년 주요국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 상향 조정

1. 개요

- OECD, '25년 세계경제전망 9월 중간보고서에서 주요국 및 세계 경제 성장을 상향 조정, '26년 경제는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OECD는 '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망치(6월) 2.9%에서 3.2%로 상향 조정
 - 미국의 관세 인상 전 선제적 조달*과 첨단 기술 투자로 예상보다 탄력적인 성장세 기록
 - * 미국 내 수요 급증에 힘입은 초기 성장과, 2분기 이후 미국 수입 감소 및 일부 지역 수출 둔화가 혼재
 - 신흥시장의 성장 강세*, 첨단 기술 투자 활성화가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했으며, 산업 생산과 무역은 대부분의 G20 국가에서 '24년 평균 성장률을 상회
 - * 신흥국 일부는 농업 생산 급증(브라질), 재고 확대(터키), 투자 반등(인도네시아) 등 예상 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
 - 단, 미국의 관세 인상이 점차 소비, 노동시장, 물가 등 세계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26년 세계경제는 점진적으로 둔화하며, 2.9%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OECD는 관세 추가 인상, 인플레이션 재확산, 재정·금융 리스크 심화, 등이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무역장벽 완화와 AI 기술의 빠른 개발 및 도입은 성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



〈OECD주요국 경제 성장을 전망(2024~2026)〉

	2024	2025	2026
세계	3.3	3.2	2.9
G20	3.4	3.2	2.9
한국	0.1	1.1	2.2
미국	2.8	1.8	1.5
중국	5.0	4.9	4.4
일본	0.1	1.1	0.5
유로지역	0.8	1.2	1.0
멕시코	1.4	0.8	1.3
캐나다	1.0	1.1	1.2

[자료: OECD '25년 세계경제전망 중간보고서]

2. 상세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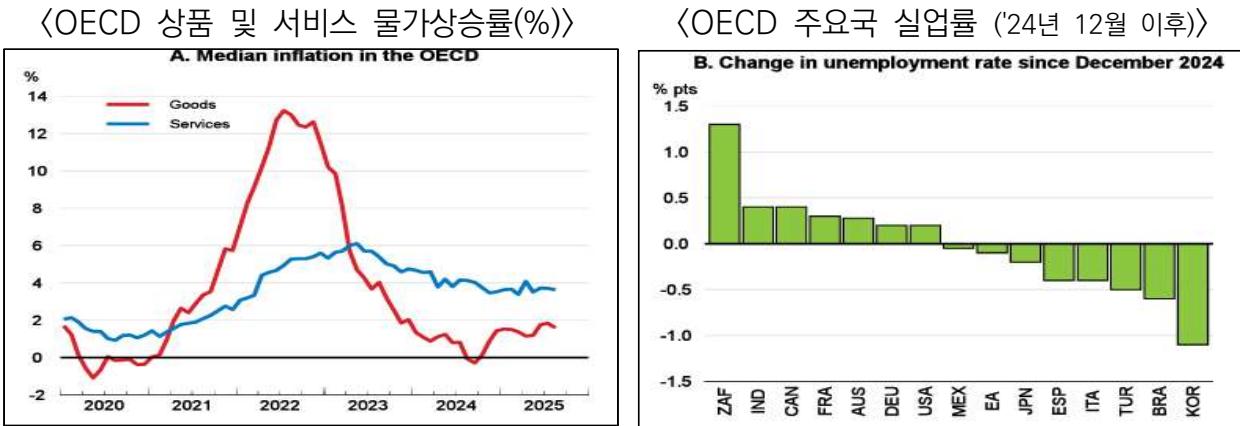
□ 한국 및 OECD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

- (한국) '25년 경제 성장률은 1.0%로 유지되며, '26년에는 2.2%로 회복 전망
 - 노동시장 실업률 감소 및 일부 완화 조짐과 반도체 등 수출 주도 성장이 지속되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 및 대외 불확실성 대응이 정책의 핵심 과제
- (미국) '25년 1.8%, '26년에는 1.5%로 점진적 둔화 예상
 - 고성장한 첨단기술 산업 투자로 일부 성장 동력이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의 높은 관세율*과 이민 감소가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 * 관세율은 '25년 8월 기준, 1933년 이후 최고 수준인 19.5%에 도달했으며, 노동시장에서 실업률 상승(4.3%) 및 구인 감소 추세
- (중국) '25년 4.9%, '26년에는 4.4%의 성장률 예상
 - 정부 지출 확대가 부동산 시장 조정과 미국과의 무역 갈등 악영향을 상쇄, 내수 회복과 기업 신뢰 증진이 긍정적 성장 요인으로 작용
- (일본) '25년 0.7%(6월 전망치)→1.1%로 대폭 상향 조정, '26년 0.5%로 둔화 전망
 - 미국 관세 인상과 지정학적 긴장 심화가 수출과 기업 투자를 제약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 둔화도 경기 활성화에 제약 요인
- (기타) '25년 캐나다 1.0%→1.1%로, 멕시코 0.4%→0.8%로 상향 조정, 유로(Euro) 지역 '25년 경제 성장률은 1.2%, '26년은 1.0%로 완만한 성장세 유지 전망

□ 주요 경제 동향

- (물가) 전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 둔화된 가운데, 상품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고 있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특히 식품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며, '24년 초 이후 유제품 및 식물성 기름 가격이 급등하며 글로벌 상품 인플레이션 상승을 견인, 주택 비용 압력은 완화

- (고용) 노동시장은 완화 조짐을 보이며 OECD 전체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위 국가 기준 실업률은 2024년 말 이후 소폭 상승
 -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 실업률 상승, 노동 수요가 감소 추세, △한국, 터키 등은 실업률 하락과 노동 수요 회복 조짐을 보이며 국가별 차별화 심화



[자료: OECD '25년 세계경제전망 중간보고서]

- (금융) 금융시장은 최근 변동성이 완화되고 신용 환경 개선, 자산 가격 상승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자산 가치 과대평가로 인한 재정 위험 우려는 여전함.
 - 선진국에서는 은행 대출이 회복 중이며, 미국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며 미국과 달러 부채 비중이 큰 일부 신흥국들의 금융 여건을 완화

□ 정책 제언

- OECD는 관세 인상의 충격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며, 세계 경제 전망에는 여전히 상당한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하고 정책 권고안 제언
 - 세계경제는 신흥국 성장세와 첨단기술 투자 확대에 힘입어 탄력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과 정책 리스크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각국이 △무역정책 투명성 강화, △중앙은행의 신속 대응, △금융·재정 안정 유지, △구조개혁 및 신기술 활용을 통해 경제성장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OECD 세계경제전망 중간보고서(25.9월)

(관세) 美, 로봇·산업기계·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232조 국가안보 조사 착수

• (개요) 로봇·산업기계 및 의료기기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 개시(9.24)

- 미 산업안보국(BIS)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로봇·산업용 기계와 개인보호장비(PPE)·의료 소모품·의료기기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 착수
- 동 조사는 수입 의존도, 공급망 리스크, 불공정 무역관행 및 가격 왜곡 요인을 검토해 국내 생산 역량과 국가안보 차원의 공급망 안정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 제시

• (상세) 232조 조사대상 품목 범위와 공개 의견수렴 절차 공지

- (조사대상) ▲로봇·산업기계(CNC 공작기계, 프레스·밀링·연삭·절단 장비 등) ▲개인보호장비, 의료 소모품(주사기·봉합사 등), 의료기기(휠체어·MRI·심박조율기 등) 포함
- (의견 접수)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21일간 공개 의견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① 국내 수요·공급 충족 여부, ② 특정국 공급망 의존도·수출 제한 가능성, ③ 불공정 무역관행 영향, ④ 국내 생산 확대 및 추가 무역 조치 필요성 등의 자료 제출 요청

※ 의견은 연방 규정 포털(www.regulations.gov)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Docket ID는 로봇·산업기계(BIS-2025-0257), 의료기기(BIS-2025-0258)로 구분

• (반응) 안보 명분 강화와 업계의 비용부담·공급망 리스크 우려 병존

- 제조·자동화 업계는 국산화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로봇·산업기계에 대한 관세 부과 시 제조원가 상승 및 생산 차질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의료계는 팬데믹 경험을 감안한 핵심 품목의 비상 수급 안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관세 부과 시 병원·요양시설 조달비용 증가 및 환자 접근성 저하 가능성 지적
- 일부 전문가는 국가안보 목적의 공급망 리스크 완화 필요성에는 긍정적이나 로봇·공작기계 등 핵심 설비의 주요 공급원*이 일본·독일·한국 등 동맹국임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관세 실효성에 의문 제기

* 주요 수입국은 일본·독일·한국·캐나다·덴마크로 전체의 67% 차지, 중국은 4.5% 비중에 불과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블룸버그(9.25), 인사이트(9.24)

(규제) 미, 중국 선박 항만수수료 10월 시행…수출입업계 부담·공급망 영향 우려

- (개요) 美, 10월부터 중국 선박 대상 항만 수수료 부과…업계 및 공급망 부담 우려
 - 미국 정부는 10월 14일부터 중국산 중국 소유·운영 선박이 미 항만에 기항할 때 별도의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확정했으며, 미국 내 수입·수출업계에서는 비용 증가와 해상운송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중국은 해상 운항 중인 컨테이너선의 약 29%, 전 세계 발주 물량의 약 70% 담당
 - 올 초 수백 개 기업·무역단체가 운송비 부담을 이유로 해당 조치에 반대한 바 있으며 미 행정부는 4월 수수료 부과안을 완화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부과, 이번 조치는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시행될 전망
- (상세) 단기적으로는 선주 부담, 장기적으로는 운임 인상·물류 구조 변화 우려
 - 1만 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기준 기항당 100만~270만 달러(2028년 최대 740만 달러) 부과 예정, 일부 글로벌 선사들은 중국산 선박을 미 노선에서 타국산 선박으로 교체 중
 - CMA CGM, MSC 등 글로벌 해운사는 현재 추가 비용을 화주(수출입기업)에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시장 상황 악화·규제 변화 시 운임 인상 변동 가능성 존재
 - 미국 농산물 수출업계는 미중 곡물농산물 교역 시 중국계 선사가 중심이라며, 수수료 전가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소매유통·수입업계도 선박의 운항 조정 및 노선 변경 등으로 서비스·물류 차질 우려와 중장기 공급망 부담 우려 표출
- (반응) 미국 노조, SHIPS 법안 통과 압박…해운 산업·항만 인프라 지원 촉구
 - 미국 5개 주요 노동조합(철강노조, 기계항공노조, 보일러메이커스, 전기노조, 선원노조)이 각 상·하원 의원에 SHIPS for America 법안 신속 통과 촉구 서한 발송, 초당적 협력과 정부·사업계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9.23)
 - SHIPS 법안은 2026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 요청됐으나, 현재는 하원안에서 주요 조항이 제외돼 입법 통과에 불확실성이 존재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WSJ (4.17)(9.17), 폴리티코(9.23)

(관세) 美, EU산 자동차 관세 15%로 소급 적용, 일부 품목 면제 조치 포함

- (개요) 미국, EU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소급 적용 발표(9.24)

- 미국은 EU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하여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였으며, 일부 품목은 관세 면제·최혜국(MFN) 세율 유지 대상으로 명시

- (상세) 미·EU 상호조치에 따른 관세 인하, 적용범위 확대 가능성 제기

-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는 EU가 8월 28일 美 공산품 및 특정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입법화한데 따른 상응 조치로, 9월 1일 선적분부터 적용

- EU산 자동차·부품은 15% 관세 상한이 적용되며, 항공기·항공기 부품, 일반 의약품 원료, 일부 천연자원(코르크·특정 광물 등)은 면제 또는 MFN 세율 유지 대상에 포함

- 항공기, 의약품 원료 등 일부 품목은 9월 1일부로 면제 또는 MFN 세율 유지가 확정되었으며, 향후 반도체 및 의약품도 동일한 상한 규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

- (반응) 업계는 양측 통상관계 완화에 긍정적, 미합의 분야 불확실성 지속

- 유럽 자동차 업계는 수주간 지연된 관세 인하 확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양측 통상 긴장 완화에 기대감 표명

- 다만, 철강·알루미늄 분야 관세 협상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산업별 공급망 불확실성과 통상 리스크는 단기간 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James Lee
▪ 자료원	연방관보(9.25), 블룸버그 (9.24), 로이터 (9.24)

☞ 의회법안 동향

의회 특이동향 없음

* 미국 동부 시간 9월 25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p><u>Auto Industry Is Flashing a Warning Sign on U.S. Economy</u> (미국 경기 둔화 신호 보내는 자동차 산업)</p> <p>미국 최대 중고차 판매업체 카맥스(CarMax)는 최근 주가가 25% 폭락하였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와 전기차 전환에 따른 막대한 비용으로 인한 것으로 영업 마진 감소</p>
The Washington Post	<p><u>White House begins plan for mass firings if there's a government shutdown</u> (백악관, 정부 셧다운 시 대규모 해고 계획 착수)</p> <p>미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정부가 셧다운 상태가 되면 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 직원은 최소한만을 남긴 채 해고 지침</p>
The New York Times	<p><u>Justice Dept. Official Pushes Prosecutors to Investigate George Soros's Foundation</u> (미 법무부, 조지 소로스 재단 수사 착수 압박)</p> <p>조지 소로스가 설립·지원하는 비영리단체 Open Society Foundations (OSF)에 강도 높은 혐의 제안, 트럼프 대통령 반대 진영 및 단체에 대한 수사 촉구에 연장선으로 평가</p>
Reuters	<p><u>Meeting Erdogan, Trump suggests he may lift sanctions on Turkey and presses on Russian oil</u> (트럼프, 러시아 석유 문제 압박하며 튀르키예 제재 해제 가능성 시사)</p> <p>백악관에서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가지며 미국이 튀르키예에 전투기 판매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튀르키예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 압박</p>
Financial Times	<p><u>Entities linked to First Brands file for bankruptcy protection</u> (퍼스트 밴드 그룹 연관 기업 파산 보호 신청)</p> <p>미국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인 퍼스트 브랜드 그룹의 과도한 부채 구조가 조명 된 가운데 여러 연관 기업이 파산 보호 신청을 제출</p>

* 미국 동부 시간 9월 25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5-36	미국 정부의 관세 위반 단속 강화 추세와 향후 전망	2025.09월
US25-35	미국 연준 금리 인하 발표 및 하반기 경제 전망 변화	2025.09월
US25-34	'25년 2분기 美 청정에너지 투자 동향과 정책 환경 영향	2025.09월
US25-33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9월
US25-32	트럼프 관세로 인한 미국 무역 구조 변화 ('25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2025.08월
US25-31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자립 정책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8월
US25-30	미 풀리실리콘 232조 조사 관련 의견수렴 주요 내용	2025.08월
US25-29	美 미소기준(De Minimis) 면세 중단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8월
US25-28	美 정부 『AI 행동계획』 행정명령 발효 - 주요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8월
US25-27	백악관 에너지산업 정책보고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7월
US25-26	CSIS 중국의 갈륨 수출 통제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 분석	2025.07월
US25-25	美 최초 암호화폐 법안(Genius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7월
US25-24	트럼프 행정부, 감세법 발효로 IRA 기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개편 추진	2025.07월
US25-23	PIIE,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2025.07월
US25-22	미·중 무역 프레임워크 진행 경과 및 향후 전망	2025.07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3 (2025.8.26.)		
코인사-22 (2025.5.13.)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shim.nature@kotra.or.kr	+1) 202-857-7919

2025 Korea-US IP Forum

Date/Time October 8th (Wed) 2025, 12:00PM-5:00PM (EST)
Venue Korean Cultural Center New York, 122 E 32nd St., New York, NY 10016
Hosted by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SA
Organized by KOIPA U.S. Capital IP Center / KIPRO PCT Korea Center | Partnered with KOSME

TIME	PROGRAM		SPEAKER	
12:00-1:00 PM	Registration & Networking			
Opening Ceremony	1:00-1:10 PM	Opening Remarks	안세영 (Sarah Ahn)	Economic Minister, Korean Embassy
	1:10-1:20 PM	Congratulatory Remarks	Charles Kim	USPTO Deputy Commissioner for Patent
1:20-1:30 PM	Photo Session			
SESSION I <small>Corporate Growth & IP</small>	1:30-2:00 PM	Seeing the Full Picture: Capturing Value Through IP	Russ Jacobs	Director, Managing Corporate Counsel, Starbucks
	2:00-2:30 PM	Design Strategies for Corporate Growth	Dunstan Barnes, Ph.D.	Partner, MBHB
2:30-3:00 PM	Coffee Break by Starbucks			
SESSION II <small>(IP Acquisition & Litigation)</small>	3:00-3:20 PM	Considerations for Filing and Prosecuting US Patent Applications	Jennifer Chheda, Ph.D.	Partner, Jones Day
	3:20-3:40 PM	Converging Currents: Korea's Evolving Patent Litigation in a Comparative Context	권보원 (Bowon Kwon)	Judge, IP High Court of Korea
SESSION III <small>Gov. Support</small>	3:40-4:00 PM	US IP Policy Directions & Corporate IP Strategies	한민열 (Manyeol Han)	Counselor for IP, Korean Embassy
	4:00-4:20 PM	Overview of S. Korea's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김성근 (Sung Keun Kim)	Minister Counselor for Competition Affairs, Korean Embassy
Closing & Consultation	4:20-4:25 PM	Introduction to KOIPA US Capital IP Center	오승혜 (Sunghye Oh)	Director, US Capital IP Center
	4:25-4:30 PM	PCT Service of Korea	이현경 (Hyun Kyung Lee)	Director, PCT Korea Center
	4:30-4:35 PM	Introduction to KOSME Global Business Center	백성우 (Sungwoo Baek)	Director, KOSME GBC-NY
	4:35-5:00 PM	On-site Consultation	김윤하-오승혜(IP) 이현경(PCT) 김성근(경쟁) 손재령(노동) 김한준(중소기업)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koipa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U.S. Capital IP Center



KIPRO
PCT Korea Center